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건립 순항

9월 말까지 전체 공정률 55.1% 달성...3차 경력 채용·생산직은 내년 상반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전경. (사진=GGM 제공)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 건립이 공정률 50%를 돌파하며 쾌속 순항하고 있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경력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 내년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3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빛그린산단에서 착공식과 함께 공사에 들어간 GGM 완성차 공장은 지난 9일 현재 52.7%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전체 공정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장별로는 차체공장 60.5%, 도장공장 62.9%, 의장공장 57.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전체 공정률 55.1%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공장별 설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설비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치고 2021년 4월 시험생산에 이어 내년 9월 완성차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GGM 완성차공장은 다양한 차종 생산이 가능한 혼류 생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어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작업자 체온 및 건 강상태를 상시 체크하고, 공사구간 방역,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철저히 실시해 전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인력 채용도 공장 건설에 맞춰 속속 이뤄지고 있다. GGM은 올해 1차 경력직 21명, 2차 경력직 39명을 채용한데 이어 현재 3차 경력직 22명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채용 대상은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4개 분야의 일반 경력직 과장급 8명, 대리급 14명이다.

대규모 생산직은 생산설비 설치와 시험생산 일정에 맞춰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을 시작하며 기초교육, 향상교육, 숙련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은 지난 2019년 1월30일 지역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심의·의결하고 하루 뒤인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화했다.

시장 경쟁력이 검증된 현대차가 차량개발, 마케팅, 품질보증, 판매까지 전담하는 안정적인 사업모델이다.

생산하는 차종은 현대차의 신규 시장 진출과 시장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처음 출시하는 모델인 경형 SUV로 결정됐다.

이음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은 지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미래 산업의 종아인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광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리본(Re-born)' 전남 실패박람회 10월8~9일 개최

전남도가 다양한 실패경험을 사회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8일부터 이틀간 '실패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전남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담은 '리본(Re-born)박람회'라는 부제를 선정해 실패박람회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표한 온택트(contact)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도민 참여 속의토론 ▲상담마당 ▲실패사례공모전 ▲실패학 콘서트 ▲응원 및 속의토론 참여 및 이벤트 ▲유튜브 구독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특히 11일부터 시작한 도민 참여 속의토론은 청년과 공동체, 마을·사회적 기업, 여성 분야의 4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가와 정책 수혜자인 도민이 직접 참여해 3개 권역(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8개 시군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게 된다.

이와 함께 주변의 다양한 실패경험들을 공유해 도민의 관심을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나의 실패 탐구생활' 실패 콘텐츠 공모전과 '나의 실패를 그려줘' 웹툰 공모전도 진행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리본박람회(2020 실패박람회 in 전남) 누리집(<http://rebornexpo.com>)을 통해 희망한 공모분야(수



기+이미지, 수기+동영상, 수기+웹툰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오프라인 심사와 온라인 참여자 점수를 합산해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1명) 80만원, 공감상(2명) 30만원 등 상금을 개작실에서 상장과 함께 수여할 계획이다.

전남도, 72곳 내년 '어촌뉴딜300' 공모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2021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15개 연안시군 72곳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군별로 여수 12곳을 비롯해 신안 12개, 완도 8개, 해남 7개, 고흥 6개, 진도 4개소 등으로 개소당 평균 사업비는 100억 원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추진된 공모에서 총 190곳 중 63곳이 선정돼 전체 33%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다 사업비 6072억원(국비 4250억원)을 확보해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다.

신안군 만재항의 경우 올해 말 여객선 접안시설 등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종선으로 갈아타는 불편함과 위험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어촌·어항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중심지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

동구, '충장상권혁신대학' 운영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장상권혁신대학' 운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충장상권혁신대학'은 상인 공동체 강화와 주민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전문가 특강, 특별 워크숍 등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된다.

동구는 이번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권 비전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충장45상생발전협의회와 뜻을 합쳐 충장으로 4~5가 상권에 직면해 각종 사업의제와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서구보건소,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해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번 비대면 금연클리닉은 코로나19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방문형 클리닉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추진된다.

비대면 금연클리닉 참여를 희망하는 서구민들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동의서 서식을 작성해 담당자 메일(y.s6530@korea.kr) 또는 팩스(350-4697)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금연전문상담사를 통해 비대면(전화, SMS, E-mail)방식으로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대규모 실내정원 조성

광주 남구 노대동 소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부에 764㎡(231.5평) 크기의 대규모 실내정원이 조성된다.

남구는 11일 '산림청 주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선정됐다"며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줄임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생활 속 녹색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그린뉴딜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부 사업 중 하나이다. 주로 생활권 주변 공간에 미세먼지 차감 등을 위한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남구는 이번 공모에서 광주지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실내정원 조성사업 지역에 선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부에 힐링과 치유를 콘셉트로 하는 실내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북구, 광주 자치구 최초 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광주 북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과 생활SOC사업 등 민선 7기 역점시책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북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54억 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6억 원(8.4%)이 증가했고 지난 1회 추경(508억 원)과 2회 추경(1939억 원)을 포함하면 본예산 7101억 원 대비 46%가 증가해 당해연도 예산으로는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1·2차 추경이 코로나19 긴급대책,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추경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각종 투자사업에 집중했다.

광산구, 외국인주민 업소 방역수칙 준수 합동점검

10일 광주 광산구가 외국인다국어통역단, 광산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피는 외국인주민 다중이용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점검 대상 업소는 음식점과 식자재판매업소 등 외국인 주민이 사업주이거나 주요 손님인 곳이었다.

합동점검단은 이날, 방문자 명단 작성과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주민에게 다국어 번역 마스크 나눠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20년단1022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강남이 (63125-2560319)
 최후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로 92

위 망 강남이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9월 14일

공고인: 강동석
 주소: 광주 서구 윤천로 32번길 23, 308동 1105호 (금호동, 금호시영3단지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9월 9일
 공고기간: 2020. 9. 14 ~ 2020. 11. 14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50대

240,833원

40대

125,531원

30대

79,147원

20대

48,103원

저소득층

26,697원

← 고소득층 → 저소득층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형의 안전

보안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진정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해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단10123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임휘곤 (930408-1636719)
 최후주소: 전남 고흥군 점암면 여도지리 708(화계리)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화전2길 26의 1

위 망 임휘곤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9월 14일

공고인: 임성인
 주소: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184, 110동 1702호 (신용동, 한양수자인리버뷰)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9월 4일
 공고기간: 2020. 9. 14 ~ 2020. 11. 14